

6월7일 아침 7시부터 강원도로 4시간동안 차를 타고 갔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철원 이였다. 점심으로는 맛있는 막국수와 수육을 먹었다. 그런 후 노동당사로 갔다. 가서 처음에 봤을 땐 그리스로 마 시대에 있을법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강사님께서 여기를 설명하시면서 여기는 전쟁 때 38 선으로 나뉘었을 당시 여기 철원은 북한땅이였다는 말에 놀랐었다. 그리고 또 난 강원도가 전쟁 때 제일 못 살 것 같던 곳이라 생각했었는데 원래는 쌀농사가 잘 났던 지역이라는 말에 한번 더 놀랐었다.



근데 여기가 전쟁이후에 건물이 다 사라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남아있고 또 이런 전쟁이 있었던 곳이라 알려주는 곳이라 여기가 정말대단한곳이라고 한번더느끼게 되었다.

그런 다음 우린 국경선 통일학교로 가서 통일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처음엔 역사시간이나 사회시간이나 영어쓰기 할 때에도 난 통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다. 왜냐면 통일을 해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돈도 부족해질 것이고 난 또 한편으로는 북한사람들이 무섭다고 느꼈었다. 혹시나 우리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근데 정지석 선생님께서 ppt와 영상으로 처음에 대동령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서로 북한과 남한 땅을 밟았다. 우린 가까운 존재이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에 관한 내용과 또 북한에게 부족한 걸 우리가 채우고 또 우리가 부족한 걸 북한이 채워 줄 수 있다는 말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난 강원도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 특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했었는데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과거가 있었고 서로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땅에 있다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후에 진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졌었다. 이렇게 멋진 특강을 들은 후 우린 평화전망대로갔었다. 가기 전에 우린 모노레일을 타고 아주 천천히 그곳으로 갔었다.



처음엔 어떻게 생겼을지 전혀 기대를 안 한 상태로 2층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이 싹다 유리 창문으로 되어있어 그 빛에 한번 놀랐었다. 창밖을 보니 산으로 쪽 덮여 있었다. 정말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색들도 너무너무 이뻐었다. 그래서 친구가 돈을 넣어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북한 땅을 보니 정말 신기했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북한 땅을 볼 수 있다는게 정말 신기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후에 옆에 밖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든 곳이 있길래 나갔는데 햇빛에 날씨가 엄청 좋아서 멀리 있는 땅들을 보며 사진도 찍었었다.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왔길래 잠깐 놀랐었다. 그리고 나서 1층에 박물관? 으로 갔었다. 거기서 가장 맘에 들었던 것은 동굴로 되어있던 곳 이었다. 정말 아득했지만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었다. 그렇게 구경을 하고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다시 돌아갔다. 가면서 보니깐 탱크가 있었다. 처음엔 우리끼리 사진을 찍다가 군인분들이 계셔서 같이 찍었었다. 그렇게 웃으면서 버스를 탔다. 그런 다음에 우린 소이산을 갔었다. 처음에 정말 오르막길도 심해서 걷기 싫었었다.



진짜 점심까진 비가 오더니 우리가 산을 딱 오르려는 순간 오라는 비는 안 오고 해가 너무 짹짹해서 더워 죽는 줄 알았었다. 그렇게 씩씩 대면서 15분밖에 안 걸리는 길을 한 30분은 걸어 간 듯하다. 근데 진짜 경사가 높아서 그런지 허벅지가 너무 아팠었다. 그렇게 땀을 엄청 흘리면서 정상에 오니깐 와... 정말 이뻐었다. 어떻게 이런 경치가 있나 하며 다시 바라봤다. 진짜 저 멀리 있는 땅이 북한이라는 말이 정말 안 믿겼었다. 그냥 우리랑 똑같은 땅이고 전혀 다르게 없었다. 왜 우린 전쟁을 했는지 왜 우린 갈라져야만 했는지 보면서 느꼈었다. 그리고 구름도 진짜 이뻐다. 그렇게 정상을 오르고 내려오는 데에도 경사가 너무 높았어서 진짜 막 뛰어 내려갔었다. 우리가 오늘 사진을 찍으면서도 '함께 가자 백두산까지' 라는 구호를 외쳤었는데 그 진심이 어디론가 들려서 언젠간 우리가 북한에 가고 또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왔길 기다린다. 우린 한 민족 이었는데 왜 갈라졌는지 정말이지 빨리 통일을 해서 호랑이 같은 땅을 널리널리 자랑하고 싶고 이제 합쳐진 큰 땅으로 사는 날이 왔으면 한다. 처음엔 힘든 도전이겠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힘든 일도 겪으며 한 민족이 되는 마음이다. 우리가 하루 빨리 통일하길 간절히 기도한다.